

뉴스 & 뉴스

북문화재 미국전시 추진

미국 뉴욕에 소재한 코리아 소사이어티(회장 도널드 그레그 前주한미대사)는 북한의 국보급 문화재를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박물관에서 전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프레드 캐러리 코리아 소사이어티 부회장은 2일 "대북 교류협력 확대를 원하는 한국정부의 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남북한 관련 당사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이 성사되면 북한의 문화재가 외부세계에 처음 공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의 북미관계 개선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윤기석 기자

한술 13·18봉사단 교육

승가원 한술종합사회복지관(관장 청광스님)은 청소년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한술 13·18 봉사단' 교육을 실시한다.

8월 4~7일 중학생, 8월 11~14일 고등학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프로그램은 자원봉사 및 장애인에 대한 강의, 레크리에이션, 자원봉사 실습, 수화 노래 배우기, 장애 체험 등으로 진행된다. 참가비는 무료. (0342)716-4215 김재경 기자

10일 보광사 문화축제

속초 보광사(주지 석문)는 10일 제2회 보광사 문화축제를 열었다.

이날 문화축제는 생전예수재, 경로잔치 장승세우기 및 장승제 등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한편 보광사는 14일 까지 도예가 서종훈 도관전 및 설치미술전(오염된 바다를 살리기 위한 상징적인 물고기 형상)도 가졌다.

대불청 집행부 3명 사표

대불청교정년회(회장 이상대)가 최근 법인 등록 등 대불청 운영과 관련해 그동안 갈등을 빚어 왔던 정우식 국장의 집행부 2명에게 사표를 요구, 수리했다. 오종욱 기자

서용스님 조사禪워크숍 연다

16~18일 백양사

무차선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지선스님)는 8월 개최 예정인 '국제 무차선회(無遮禪會)'에 앞서 '서용스님 조사선 워크숍'을 16~18일 백양사에서 갖는다.

한국 조사선의 장·단점과 수행풍토, 현대사회에서의 조사선의 역할·미래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이번 워크숍은 사전 배포된 질문지를 통해 조사선에 관련한 에피소드를 보전해야 할 것"이라며 남방불교에 예불의식의 확산은 각 종단의 종지·종풍 차원에서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을 계획이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 실천승가회 9일 성명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장 청광)는 9일 조계종 총무원 불교회관에서 8·15 양심수 전원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실천승가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정부 가 과거 잘못된 역사를 과감히 청산하는 용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 법무부, 국민회의, 야권연립, 한나라당에 "조건없는 양심수 전원석방을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23일에는 2백여 회원사에서 양심수전원석방을 위한 초하루법회를 동시에 봉행할 방침이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중국종교인구 불자 가장 많다

3~4천만명 추산...기독교인은 1천만명

중국에서 가장 많은 신자를 보유한 종교는 불교인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국가종교사무국은 최근 중국의 종교활동인구는 약 1억명으로 추산되고 이중 불교와 도교가 가장 많은 신도를 보유, 모두 5천여만명으로 집계된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경우 불교와 도교가 혼재되어 같은 사람·사원에서 신교를 구분하기 힘든 점이 두 종교의 구분에서 미묘한 점을 감안하면 불교인구는 3~4천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국가종교사무국은 또 사찰·사원이나 교회 등 각종 종교활동 장소가 8만5천여개에 이르고, 교역자와 종교학교도 각 30여만명과 74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중 기독교 신자는 1천만명이며 교회가 1만2천여개, 예배장소가

2만천여개에 달한다.

"종교를 믿지 않는 것도 자유"라는 중국 공산당의 독특한 전통으로 인해 포교를 하지 못한다에 접어들어 신도 증가에 어려움이 있으나, 매년 수십만명씩 종교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개방·개화로 인한 자유주의 물결이 '종교의 자유'에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기독교 등 서양종교와 한국불교 등에 대해서는 경계의 눈길을 늦추지 않기 때문에 외국 종교인들의 포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연변 등 조선족 자치구에 집중적으로 목사를 파견하고 있는 기독교는 자선활동이란 명목으로 선교활동을 비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남방불교에 '호기심'

위빠사나 법회·수행 늘어 서울·부산에 빨리불교대 개원

남방불교에 쏟는 관심이 학자들의 연구 중심에서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의 신앙 형태로 변화하는 가운데 서울과 부산에서 스리랑카 국립빨리불교대학교 한국분교(이사장 허현오)가 개원되는 등 빨리어경전과 예불의식, 위빠사나 수행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남방불교 의식과 수행은 사찰과 대학가에 널리 퍼져있다. 대중사(주지 도상), 가야사(주지 마성), 보명사(주지 상원) 등 10여개 사찰과 거례스님의 위빠사

나선우회 등에서는 빨리어예불의식이 병행되고 위빠사나 수행이 수반법으로 채택되고 있다. 장원대, 서강대, 용인대 등 대학에서는 명상과 개설돼 위빠사나 강좌가 열리고 있다. 대전생활불교회관, 용인 와우정사, 위빠사나 많은 명상원 등에서도 명상교실이 운영되고 있다.

삼귀사상-오계-경독송 순으로 진행되는 남방불교 예불의식은 '반야심경' '사홍서원'은 없었지만 '삼귀사상'도 '삼귀의'와는 사뭇 다르다. '경독송'에 사용되는 <지비경> <삼보경> <길상경> 등서는 '와서 보라' '증득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등과 같이 실재적인 어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표현되어 있다. 위빠사나는 몸과 마음이 일어나고 내려가는 것 등 대상에 관찰하며 깨달음을 추구해 한국불교의 조사선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국립빨리불교대학교 한국분교 교수로 위촉된 마성스님은 "불자들은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관정도, 위빠사나 등에 깊은 인상을 받는 것 같다"며 남방계 예불의식과 수행이 늘어가고 있는 현상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보광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은 "수행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종지·종풍이 표현되는 예불의식은 보전해야 할 것"이라며 남방불교에 예불의식의 확산은 각 종단의 종지·종풍 차원에서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장기수 후원회 창립

불교장기수후원회(상임대표 지원) 창립발대식이 4일 조계종 총무원 불교회관에서 열렸다. 도운·법안스님, 박진우회장 등 3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발대식에서 '비전향 장기수를 포함한 모든 양심수를 조건없이 즉각 사면 석방조치하라'는 내용을 글자로 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통일축전불교본부 결성 상임대표에 지선스님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 진각종 대한 밀교청년회 등 교계 10여개 단체인 8일 서울 경주동 육화관에서 '민족의 화해·평화·통일을 위한 대축전' 개최를 위한 불교단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8·15대축전 불교추진본부 구성을 결의하

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대축전 남측추진본부'의 원칙과 남북합의서 정신에 동의하는 단계 및 개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상임대표에 지선스님, 공동대표에 청화 지원 진관 도법 지성스님과 회정정사, 본부장에 효림스님을 추대하기로 하고, 향후 참여인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도필선 기자

WFB대회 10월19~11월2일 호주 시드니서

'21세기 향한 불교의 도전' 주제

WFB(세계불교도우의회) 제20차 및 WFBY 제11차 대회가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21세기를 향한 불교의 도전'을 주제로 열린다.

호주불교연합회가 주최하고 대만 불광산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주제토론과 호주불교 탐방, 결의문 채택 등으로 진행된다. 이번 대회에는 50개국 150개 지부 대표 등 2천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부산서도 기념관건립기금마련 산중음악회

국악선율로 위안부 '위안'

일본군위안부 기념관 건립기금마련 김영동 산중음악회가 4일 부산 동명불원 대법당 앞에서 열렸다. 나눔의집(원장 혜진)이 주최하고 동명불원(주지 정산)이 주관한 이날 음악회는 부산에서는 처음 있는 산사음악회에서 불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훈화머니를 비롯해 1천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한 이날 음악회에

서 정산스님은 "오늘 음악회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우리 문화와 역사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으면 한다"며 "불자들은 할머니들의 눈물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감싸 안을 줄 아는 동체대비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문화재관리국-경주시 고도보존법 놓고 '상충'

세금감면등 주민편의 의견달라

문화재관리국과 경주시가 문화재보호와 주민민원 해소를 위해 각각 신청한 고도보존법이 내용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여 마찰이 우려된다. <본지 139호 1면, 141호 18면 참조>

문화재관리국이 지난해 7월 문화정책개발원에 용역의뢰한 '옛도시보존법'안 통과를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중인 가운데 경주시가 최근 별도의 '고도보존법'안을 마련, 시의회 승인을 거쳐 문화재관리국에 신청을 한 것. 문화재관리국의 옛도시보존법은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비해 문화재 규제지역의 일부

세제혜택과 건축규제 완화 등 주민 편의를 고려하긴 했지만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등 중요성점부분이 누락돼 있다.

반면 경주시가 신청한 고도보존법은 △발굴비용 전액 국가부담 △토지보상시 인근토지 살거래가격 적용 △규제된 토지의 각종 세제 감면 및 면제 △국가의 문화재관련 지역 정비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아 주민요구를 1백% 반영하고 있다.

이같이 문화재관리국의 옛도시보존법은 주민의 요구를 크게 반영한 경주시의 고도보존법에 못미쳐 두 법안의 조정이 불가피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경주시 서용문화화재장은 "현재 2개 법안이 각각 따로 신청돼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민약 주민요구를 외면한 법안이 확정될 경우 오히려 주민들의 집단민원 등 문제가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기석 기자(gsoyon@buddhapia.com)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단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자내용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상의 상징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 10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로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 11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 12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례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내용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수 해주어야 하는가?
- 4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5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6 특별 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 7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 9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0 특별 천도제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여성고민의 원인과 향요법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향(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항비는(자연향) 테크팩과 엔들이라는 정유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지방질을 산화시킵니다.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고민은 끝!

이 항비를 신권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양육성분의 성분이 신권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작용에 전입하여 각종 효과를 만듭니다. 항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땀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권혈(배꼽)에 항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유과 양, 기억,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항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항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증상(○) 하십시오.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빈번히 있다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생리가 예민하거나 신경성이다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8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10 생리때 뒷덜이 고통을 받는다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14 말비덕이 걸러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15 전신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16 목이 바르거나 눈이 침침하다
-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 18 눈도나 감성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